

개요

이 일대는 막부 말기까지 마쓰다이라 히젠노카미를 비롯한 다이묘 저택이 있었으며, 메이지 시대부터는 육군 연병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 시구개정설계(도시계획)가 추진되면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수도 도쿄에 걸맞도록 근대적인 공원 탄생을 염원하던 가운데, 혼다 세이로쿠 박사가 설계하여 조성된 것이 히비야 공원입니다. 히비야 공원은 서양문화를 대담하게 수용하면서도 일본의 요소를 지혜롭게 조화한 일본 최초의 '서양식' 공원으로 탄생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역사를 거듭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구비카케 은행나무

공원 내에서도 한층 그 위엄을 자랑하는 이 나무는 추정 수령 400~500년에 이르며, 둘레는 7m에 달합니다. 원래는 현재 히비야 교차로 부근에 있었으며, 도로확장을 위해 벌목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혼다 박사가 '내 목을 걸고서라도'라는 강한 의지로 1902년에 이식했습니다. 약 450m 거리를 25일에 걸쳐 옮긴 거목은 현재, 히비야 공원의 상징으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소음악당과 대분수

일본 최초의 야외음악당으로, 1905년에는 주로 군악대의 공연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3대를 맞이하는 건물에서 소방청 및 경시청 소속 음악대가 많은 팬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대분수와 잔디 정원 광장(구 제2화단)은 공원 개장 당시 운동장으로 정비되었으며, 여러 국가적 행사들이 열리는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는 일 년 내내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며, 많은 사람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이곳이 바로 유산!!

히비야 미쓰케 유적의 돌담

유라쿠몬을 들어서면 바로 왼쪽에 보이는 이 돌담은 에도성 경비를 위해 만든 성문(미쓰케) 중 하나인, 히비야 미쓰케 중 일부입니다. 공원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사쿠라다몬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과거의 히비야 미쓰케도 고라이몬과 마스가타, 와타리아구라, 번소 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혼다 박사는 남아있는 돌담과 해자를 잘 살려 설계함으로써 히비야 공원 특유의 매력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원 내에서는 유라쿠몬을 비롯한 문주와 상수시설 유적지 석판 등 곳곳에서 역사적인 유구를 볼 수 있습니다.



공원 개요

문의처

지정관리자 공익재단법인 도쿄도 공원협회
히비야 공원 서비스 센터

〒100-0012

도쿄도 지요다구 히비야코엔 1-6

TEL 03-3501-6428

FAX 03-3501-6429

※8:30-17:30 (연말연시 제외)

소재지

도쿄도 지요다구 히비야코엔 1-6

개원 연월일

1903년 6월 1일

개원 면적

161,636.66㎡ (일부는 국유지를 무상임대 중입니다.)

주요 시설

히비야 공회당, 대음악당
소음악당, 진열장, 히비야 도서관
펠리체 가든 히비야, 테니스 코트
구사치 광장, 레스토랑·매점
녹색 자연과 물의 시민 컬리지

follow me

X(구 트위터) @ParksHibiya

URL <https://www.tokyo-park.or.jp/>



찾아가는 길



교통

- ① 도쿄메트로 마루노우치선·지요다선 '가스미가세키'에서 도보 2분
- ② 도쿄메트로 히비야선·지요다선·미타선 '히비야'에서 도보 2분
- ③ 도쿄메트로 유라쿠초선 '사쿠라다몬'에서 도보 5분
- ④ JR 야마노테선 '유라쿠초'에서 도보 8분

※주차장(유료 지하 공공 주차장)

MEMO

스탬프 시트로도 이용해 보세요.